

# 투데이

## 4년만에 다시 뭉친 영호남 시·도지사들

# “지역 균형발전·지방분권” 한목소리

### 4개항 공동 성명서 채택

### 차기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4년만에 뭉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강은태 광주시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3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제 11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4개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국가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실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대 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



영·호남 8개 시·도가 지난 3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시·도지사협력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목포~부산 KTX 조기 건설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법일 대구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원주 전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강은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전남도 제공>

고 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 지방의 안정적 자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와 함께 공동정책 건의 과제 6건과 지역균형발전 건의 과제 9건 등 총 15건의 과제를 채택해 정부측에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의 과제로는 ▲영호남 연결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88올림픽 고속도로

조기 확장 ▲목포~부산 고속철도망(KTX) 조기 건설 ▲남해안 선별쓰레기 처리장 등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당초에는 배제됐던 광주~대구간 철도 건설도 9건의 균형발전 과제에 포함됐다.

공동정책 건의 과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공동 대응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국고 환원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공공 공사에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등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충선과 대선 공약에 이같은 건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전에 시도지사들이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의장으로 김두관 경남지사가 선임됐고, 예정처럼 회의를 1년에 한차례씩 정례화 해 내년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필수기자 bungy@wangju.co.kr

## 수자원 통합 관리, 탄소세 도입, 환경시법권 강화

# 세계 환경정책 대안 나왔다

### 광주 '지구환경전망 회의' 폐막

지구촌 환경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지구환경전망(GEO-5) 세계 정부간 회의'가 지구촌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행동 대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31일 폐막했다.

UNEP(유엔환경계획)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환경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탄소세 도입, 환경시법권의 강화 등이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환경정책행동으로 강조됨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세계 환경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GEO-5 보고서의 최종 문안을 둘러싸고 각국 간의 치열한 살전이 폐막 직전까지 이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막식 4시 20분까지 이어졌고, 이때문에 31일 폐막식도 약속했던 시간인 12시 30분을 넘겨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열리게 됐다.

이처럼 시간이 지연된 것은 GEO-5 보고서의 초점을 환경규제에 둘 것인가, 빈곤퇴치와 기술 이전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경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도국들은 UNEP가 작성한 GEO-5 보고서 초안이 선진국의 환경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기술 전수와 자급지원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공식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시청정개발체제(Urban CDM)를 위한 특별세션을 개최, 광주시와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청정개발체제를 국

제사회에 알린 것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세계 정부간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에게 올 3월부터 있을 도시청정개발체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주문, 각국 정부대표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또, 광주 의 도시청정개발체제 개발방향이 청정개발체제(CDM)의 최종 등록기구인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준과 일치하고 있어 광주가 세계 최초로 도시청정개발체제를 UNFCCC에 등록, '탄소금융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한편, 31일 폐막식에서는 강은태 시장 명의의 'GEO-5 폐막에 즈음한 제안'이 발표되어 광주시와 UNEP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했으며, UN 산하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희망하는 광주시의 뜻이 전세계 정부인사들에게 전달됐다.

/홍형기기자 redplane@

## 檢, '민주 돈봉투' 부천 후보사무실 압수수색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공표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모(50)씨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검사와 수사관들을 김 후보 사무실에 보내 회계 및 경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경선 유권자인 일부 중앙위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녹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에서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인물이 김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경선 참가자들에게 초대장을 돌린 것일 뿐 돈 봉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국회의원 겸 비서 함은미(38) 보좌관을 이날 오후 2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 금융업·음식업 주52시간 이상 근무 제한

금융업, 광고업, 음식서비스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이다.

노사정은 지난 6개월 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

친 뒤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일부 업종 세부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연합뉴스

## 지역발전추진 '지역공생발전포럼' 가동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키로 했다.

총괄 지역발전위원장은 31일 청와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르면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위는 포럼 논의에 지역 학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포함시켜 지역간 소통 및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간 극심한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별 특성에 따라 1박2일간 맞춤형 심화 토론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금융 분쟁조정 전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

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감원장 제정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 감사원, 전남도 감사

### 17일까지 도청 전방

감사원이 전남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30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전남도청 전방에 걸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에는 전남도의 주요 현안인 F1(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비롯, 영암·해남 관공래저형 기업도시, 주요 건설 사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15명의 인원이 동원돼 이뤄지며 2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 형식을 띠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감사일 뿐 특정 사업을 위주한 감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향고혈압 제제와 향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수축기 혈압(SBP) 130mmHg/이완기 혈압(DBP) 80mmHg 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100mg/dL 이상)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 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 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시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문의처 : 010-4095-1850

### 전통 침·뜸·부항

미국 이민 및 해외한인사 진출 설명회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통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광주 2기 **2월 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분원 위치: 쌍촌역 1번출구 화정역방향 50m직진 3층

미국이민 및 해외진출 설명회

광주분원 **2월 4일(토) 오후 2시**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법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나트 놓고 가자도 모른다" 먼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 사주명리학:** 광주시에 평생교육원중 가장 많은 수강생이 몰려드는 그 비결은? 한번 들으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눈에 확 들어온다! 최첨단 영상으로 학습능력을 배가 하고 집에서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할수 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2주간	2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14-16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야간	3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1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 초급	3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사주명리 고급	3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2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2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현원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I세-80%+a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한리 신청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 (현원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출 | 연체 (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연평균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